

아리타 세라(Arita Será)

아리타 세라(Arita Será)는 아리타 도자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야외 대형 쇼핑몰입니다. 1975 년에 도매 단지로서 개설되었으며, 2018 년에 리뉴얼되면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쇼핑몰의 새로운 이름은 이 복합 시설을 운영하는 아리타 도자기 도매 단지 협동조합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세라(Será)는 영단어 ‘seller(판매자/셀러)’와 ‘ceramics(도자기/세라믹)’의 일본어 발음을 조합한 것입니다.

일용 식기부터 고급 미술품까지 아리타 도자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22 곳의 매장과 더불어 갤러리와 레스토랑, 부티크 호텔도 있습니다. 넓은 주차장을 갖춘 야외 쇼핑몰은 아리타 지역을 여행하는 중간에 휴식을 취하고 시간을 보내기에 최고의 장소입니다. 중앙 프롬나드의 양쪽에 늘어선 매장들은 지붕이 달린 인도로 이어져 있어 여름철 더위와 비를 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아리타 세라에 있는 대부분의 매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려 있지만, 영업시간은 매장마다 다릅니다. 11 월 말부터 2 월 말까지는 중앙 프롬나드에 겨울 일루미네이션과 매장의 조명으로 꾸며집니다.

또한, 아리타초 최대 규모의 이벤트, 그리고 일본 국내 최대 규모의 도자기 시장인 아리타 도자기 시장의 일부는 매년 4 월 29일부터 5 월 5 일까지의 골든위크 기간에 매일 이곳을 포함해 아리타초 내 전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기간 중에 공휴일이 4 일 있는 이 골든위크는 1 년 중 가장 붐비는 나들이 및 여행 시즌 중 하나입니다.